

원 저

四象人の 容貌에 관한 설문분석 연구

이의주¹⁾, 김정수¹⁾, 손은혜¹⁾, 유정희¹⁾, 콧창규¹⁾, 고병희¹⁾, 김종원²⁾, 김규곤³⁾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²⁾

동의대학교 정보통계학과³⁾

The Study of Sasangin's Face by Sasangin Diagnosis Questionnaire (SDQ)

Eui-ju Lee¹⁾, Kyung-su Kim¹⁾, Eun-hae Sohn¹⁾, Jung-hee Yoo¹⁾, Chang-kyu Kwak¹⁾, Byung-hee Koh¹⁾,
Jong-won Kim²⁾, Kyu-kon Kim³⁾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¹⁾.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eui Univ²⁾.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Dongeui Univ³⁾.

Objectives : SDQ is the measure for diagnosis of the Sasang constitutions. It evaluates external shape, mentality and symptoms of Sasangin. We analysed the items related with external shape to identify the feature of Sasangin's face.

Methods : We analysed the data collected by multi-center researchers in 2004. We used Chi-square test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tem and Sasang constitutions.

Results : There were 15 items significantly related with each corresponding constitution($p < 0.05$). 2 items were defined as Taeyangin's, 4 items were defined as Soyangin's, 5 items were defined as Taeumin's and 4 items were defined as Soeumin's.

Conclusions : The items were partially contribute to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s. For more accurate diagnosis, there is the need to accumulate corroborative evidence about Sasangin's actual external shape.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SDQ, Face.

서 론

사상의학의 기본 관점은 체질에 따라 생리와 병

리 및 병증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학의 임상 활용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체질 판정은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겠다.

체질 판정에는 외형, 심성, 증상(소증, 병증)의 세 가지 요소가 주요 근거가 된다. 이 중 외형에 대해서는 체형과 용모의 실제 계측을 통하여 체질에 따른 신체의 형태학적 차이를 분석하는¹⁻⁴⁾ 체질별 이미징 정량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상체질분류검사지(SQSC II)가 조사 도구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

· 접수 : 2005년 7월 21일 · 논문심사 : 2005년 12월 24일
· 채택 : 2006년 1월 23일
·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1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02-958-9230, Fax:02-958-9234, E-mail: sasangin@paran.com)
·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에 의한 것임.(과제번호: B050010)

Table 1. Content of the Item on Sasangin's Face

용모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계
容貌(첫인상)	2* 1(1),18†	2 1(3),1(4)	2 1(5),1(6)	3 1(7),1(8),1(9)	9
顔(얼굴)	4 1(2),2(1),2(2),3(1)	1 3(2)	3 2(2),3(3),3(5)	2 2(1),3(4)	10/8
額(이마)	1 4(2)	2 4(2),4(3)	2 4(1),4(4)	2 4(2),4(3)	7/4
目(눈)眉(눈썹)	3 5(1),5(2),5(6)	2 5(2),5(3)	2 5(4),5(8)	3 5(5),5(7),5(9)	10/9
鼻(코)	1 6(1)	2 6(2),6(5)	3 6(3),6(5),6(6)	1 6(4)	7/6
口脣頤	1 7(5)	5 2(2),2(4),7(1),7(6),7(8)	4 2(3),2(5),7(2),7(7)	4 2(4),7(4),7(5),7(9)	14/12
耳	1 8(1)		1 8(2)	1 8(3)	3
詞氣	1 9(1)	2 9(2),9(5)	1 9(3)	2 9(4),9(6)	6
소계	14	16	18	18	66/57 (25.7% / 25.1%)

* count of items, † Item no.

증절차를 거쳐⁵⁹⁾ 임상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는 전통적으로 체질 진단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계량화하고 분석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체질 진단을 위한 설문지는 외형·심성·증상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포괄적인 성격을 띤 것이어야 하겠지만 실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가 측정하는 요소는 체질 진단의 세 가지 요소들 중 주로 심성의 측면에 치우쳐 있다. 또한 태양인에 대한 진단이 어렵고¹⁰⁾ 판별정확도가 낮다는 단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II)^{11,12)} 등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

현재 사상체질의학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기존의 여러 체질 관련 설문지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고 타당성 있는 새로운 설문지(SDQ)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다기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새 설문지(SDQ)는 총 229 문항 중 외형 관련 문항이

91 문항, 증상 관련 문항이 84 문항으로 외형 개념과 증상 개념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이 새로운 자기보고식 체질 진단설문지(SDQ)를 가지고 시행된 다기관 연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체질 진단의 세 가지 요소들 중 특히 용모와 관련된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의 용모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사상인 용모의 특성에 관한 지견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4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9개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의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여 새로 개발된 설문지(SDQ)를 작성한 사람들 중, 각 한방병원의 사상체질과 전문의로부터 체질진단을 받고 최소한 4주 이상 사상체질 처방을 사용한 후 주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았던

Table 2. Distribution of Sex and Age of the Subjects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Age(year)	44.0±8.8*	44.1±15.7	40.45±17.3	37.4±15.3
Sex(%male)	62.5	40.3	51.3	50.8

* Mean±Standard Deviation

43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나이가 12세(초등학생) 미만 혹은 80세 이상인 사람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434명의 연구대상 중 설문 문항의 50% 이상에 응답하지 않은 6명과 같은 번호에 연속으로 10회 이상 응답한 5명을 불성실응답자로 간주하여 11명을 제외한 후 남은 423명을 최종 대상으로 삼았다.

2. 용모 측정 도구

체질진단지(SDQ)를 이용하여 체질에 따른 용모적 측면의 차이점을 측정하였다. 체질진단지(SDQ)는 2003년부터 사상체질의학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새로운 체질 진단 도구로서 공동 개발 중인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설문 문항은『동의수세보원』 및 기타 동무 이제마의 저작과 후대 사상의학 연구자들의 저작에 기준하여 개발되었으며 총 229 문항과 3지 선택형의 답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체질진단지(SDQ)는 외형(용모와 체형), 심성(성격), 증(생리적 증상 및 병리적 증상) 등 3개의 영역을 측정하며 외형 관련 문항이 91 문항, 심성 관련 문항이 54 문항, 증 관련 문항이 84 문항으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가 주로 심성의 측면에 치우쳐 있는데 비해 보다 포괄적인 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용모의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인상 9문항, 얼굴형 8문항, 이마 4문항, 눈과 눈썹 9문항, 코 6문항, 口脣頰 12문항, 귀 3문항, 詞氣 6문항으로 총 57문항에 해당된다. 이들 문항중 2가지 체질에 해당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66문항이 된다. 이중에 태양인 14문항, 소양인 16문항, 태음인 18문항, 소음인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3. 통계적 분석

모든 분석에는 Windows®용 SPSS® version 11.5를 이용하였다. 체질진단지(SDQ)의 용모 관련 문항과 체질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으며, 유의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중비교를 실시하여 체질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총 423명의 연구 대상 중 태양인이 16명(3.8%), 소양인이 129명(30.5%), 태음인이 150명(35.5%), 소음인이 128명(30.3%)이었다. 각 체질별 연령 분포 및 성별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2).

2. 용모 관련 문항 분석

체질진단지(SDQ)의 용모 관련 문항에 대한 체질별 교차분석(Chi-Square test) 결과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18문항이었다 (*p*<0.05)(Table 3).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하여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태양인의 경우 타 체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5문항이었다. 이 5문항 중 문항이 원래 의도하는 체질이 태양인인 경우는 1(1), 9(1)의 2문항이었으나 이 두 문항에서는 태양인과 소음인 간의 차이만 나타났을 뿐이며 태양인과 태음인 혹은 태양인과 소양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태양인을 염두에 둔 문항이 아니었지만,

Table 3. Discriminating Items of the Face of Sasang Constitutions

Item no.	Content of Item	p
1	나의 첫인상은 ?	
1(1)	과단성(카리스마적인 면)이 있다	<.001
1(3)	날쌔면서 용감하다	<.001
1(5)	과묵하면서 점잖다	.004
1(6)	듬직하다	<.001
1(7)	온순하다	.002
1(8)	차분해 보인다	.001
1(9)	차갑다	.004
2	나의 얼굴형은?	
2(4)	▽형	.017
3	나의 얼굴 특징은 ?	
3(1)	머리가 크다	<.001
3(3)	얼굴이 넓적하다	<.001
5	나의 눈과 눈썹은 ?	
5(1)	늘 부릅뜬 눈이다	.007
5(4)	눈이 크고 순해 보인다	.021
6	나의 코는?	
6(2)	코끝이 얇고 예리하다	.019
7	나의 입술과 턱은 ?	
7(9)	토끼이빨이다	.032
8	나의 귀는 ?	
8(2)	귓불이 두툼하다	.022
9	나의 말은 ?	
9(1)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다	<.001
9(4)	목소리가 작고 차분하다	<.001
9(5)	말이 많아 경솔해 보인다	.023

1(3) 문항의 경우 태양인과 다른 두 체질 (태음인, 소음인) 간의 차이를 나타냈고, 5(4) 문항은 태양인과 소양인 사이의 차이를 나타냈다. 5(4) 문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문항도 태양인과 소양인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Table 4).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 소양인의 경우 타 체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8문항이었으며, 이 8문항 중 문항이 원래 의도하는 체질이 소양인인 경우는 1(3), 2(4), 6(2), 9(5)의 4문항이었다. 1(3) 문항은 소양인과 다른 두 체질 (태음인, 소음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나머지 3문항들은 소양인과

다른 한 체질 사이의 차이만 나타내었다. 또한 소양인과 태양인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2(4) 한 문항뿐이었다. 이들 문항들에 대한 소양인의 응답 비율은 각각 21.3%, 21.4%, 9.4%, 7.1%로 낮은 편이었다($p < 0.05$)(Table 5).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 태음인의 경우 타 체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12문항이었다. 이 12문항 중 문항이 원래 의도하는 체질이 태음인인 경우는 1(5), 1(6), 3(3), 5(4), 8(2)의 5문항이었으며 이들 문항들에 대한 태음인의 응답비율은 각각 45.3%, 43.0%, 27.9%, 31.3%, 33.1%이다.

Table 4. Discriminating Items of Taeyangin's Face

Item no.	Constitution*	Response rate [†]	Multiple comparison*
1(1)	1	태양(31.3) 소양(24.2) 태음(19.3) 소음(12.5)	1,2,3>4
1(3)	2	태양(40.0) 소양(21.3) 태음(11.4) 소음(5.5)	1,2>3,4
5(4)	3	태양(31.3) 태음(25.2) 소음(22.0) 소양(13.4)	1,3>2
9(1)	1	태양(43.8) 태음(32.7) 소양(31.5) 소음(9.5)	1,2,3>4
9(5)	2	태양(12.5) 태음(7.5) 소양(7.1) 소음(4.0)	1,2>4

* 1=Taeyangin, 2=Soyangin, 3=Taeyumin, 4=Soeumin

† %

3(3)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다른 모든 체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 1(6), 8(2) 문항은 태음인과 다른 두 체질(소양인, 소음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5(4) 문항은 태음인과 소양인 간의 차이만을 나타내었다($p<0.05$)(Table 6).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 소음인의 경우 타 체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7문항이었다. 이 7문항 중 문항이 원래 의도하는 체질이 소음인인 경우는 1(7), 1(8), 2(4), 7(9), 9(4)의 5문항이었으며 이들 문항들에 대한 소음인의 응답비율은 각각 60.9%, 64.8%, 21.4%, 11.1%, 35.9%였다. 특히 1(8), 9(4)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다른 모든 체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소음인과 다른 두 체질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Table 7).

고 찰

체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상인의 용모에 대하여 특징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의미를 설정하였다.

즉, 가장 특징적인 용모를 설명하는 문항은 체질 문항으로써 다른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서 33.3%(답가지가 3지선택형이므로 설정한 비율임)이상의 반응빈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번째로 체질문항으로 다른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서 33.3% 이하의 반응빈도율을 나타낸 문항

을 삼는다. 이것들은 사상인의 용모 특성을 반영하는 '매우 의미는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세 번째로 체질문항으로 다른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서 33.3% 이상의 반응빈도율을 나타낸 문항을 삼는다. 네 번째로 체질문항으로 다른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서 33.3% 이하의 반응빈도율을 나타낸 문항을 삼는다. 이상의 것들은 사상인의 용모에 특징을 설명할 때 '의미있는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질문항으로 다른 한 집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의 경우는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태양인을 타 체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문항은 5문항이었다. 이들 중 원래 태양인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두 문항('1(1)과단성(카리스마적인 면)이 있다', '9(1)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다')에서는 태양인과 소음인 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며 태양인과 태음인 혹은 태양인과 소양인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태양인 용모에 특유한 중요 특성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참고할 만하다. 다른 3 문항들 중에도 태양인과 다른 모든 체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용모의 측면에서 태양인이 다른 체질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태양인의 수가 매우 희소하여 태양인 집단의 특징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소양인을 타 체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문항은 8문항이었고 이들 중 원래 소양인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항은 4문항이었다. 이들 중 '1(3)

Table 5. Discriminating Items of Soyangin's Face

Item no.	Constitution*	Response rate [†]	Multiple comparison*
1(1)	1	태양(31.3) 소양(24.2) 태음(19.3) 소음(12.5)	1,2,3>4
1(3)	2	태양(40.0) 소양(21.3) 태음(11.4) 소음(5.5)	1,2>3,4
1(9)	4	태양(37.5) 소음(30.5) 소양(25.8) 태음(19.5)	2>3 / 3>4
2(4)	2,4	소음(21.4) 소양(11.9) 태음(8.3) 태양(.0)	2,4>1 / 4>3
5(1)	1	태양(6.7) 태음(3.4) 소양(3.1) 소음(1.6)	2,3>4
6(2)	2	소음(10.2) 소양(9.4) 태음(4.7) 태양(.0)	2,4>3
9(1)	1	태양(43.8) 태음(32.7) 소양(31.5) 소음(9.5)	1,2,3>4
9(5)	2	태양(12.5) 태음(7.5) 소양(7.1) 소음(4.0)	1,2>4

* 1=Taeyangin, 2=Soyangin, 3=Taeumin, 4=Soeumin

[†] %

날쌔면서 용감하다' 는 소양인과 다른 두 체질 (태음인, 소음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의미 있는 문항이다. 소양인과 다른 한 체질 사이의 차이만 나타낸 나머지 3문항('2(4)▽형', '6(2)코끝이 얇고 예리하다', '9(5)말이 많아 경솔해 보인다')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소양인의 경우는 특징적으로 문항에 대한 반응빈도율이 낮은 편이어서 반응빈도율이 33.3%를 넘는 문항이 하나도 없었다. 또한 다른 모든 체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용모만 가지고서 소양인을 타 체질과 명확하게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태음인을 타 체질과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문항은 12문항이었고 이들 중 뒤래 태음인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항은 5문항이었다. 이들 중 '3(3)얼굴이 넓적하다'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다른 모든 체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따라서 이 문항의 내용이 타 체질과 구별 가능한 태음인 용모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응답비율이 높으며 동시에 태음인과 다른 두 체질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태음인의 용모 특성을 의미있게 반영하는 것

Table 6. Discriminating Items of Taeumin's Face

Item no.	Constitution*	Response rate [†]	Multiple comparison*
1(1)	1	태양(31.3) 소양(24.2) 태음(19.3) 소음(12.5)	1,2,3>4
1(5)	3	태음(45.3) 태양(31.3) 소음(28.1) 소양(24.2)	3>2,4
1(6)	3	태음(43.0) 소양(21.3) 태양(18.8) 소음(11.7)	3>2,4
1(7)	4	소음(60.9) 태음(51.3) 소양(39.1) 태양(18.8)	3,4>1 / 4>2
1(9)	4	태양(37.5) 소음(30.5) 소양(25.8) 태음(19.5)	2>3 / 3>4
3(1)	1	태양(26.7) 태음(25.2) 소양(15.0) 소음(8.7)	3>2,4
3(3)	3	태음(27.9) 소양(15.7) 소음(12.6) 태양(12.5)	3>2,4 / 4>1
5(1)	1	태양(6.7) 태음(3.4) 소양(3.1) 소음(1.6)	2,3>4
5(4)	3	태양(31.3) 태음(25.2) 소음(22.0) 소양(13.4)	1,3>2
8(2)	3	태음(33.1) 소양(20.5) 소음(18.8) 태양(12.5)	3>2,4
9(1)	1	태양(43.8) 태음(32.7) 소양(31.5) 소음(9.5)	1,2,3>4
9(4)	4	소음(35.9) 태음(16.9) 소양(7.1) 태양(.0)	4>1,2,3 / 3>2

* 1=Taeyangin, 2=Soyangin, 3=Taeumin, 4=Soeumin

[†] %

Table 7. Discriminating Items of Soeumin's Face

Item no.	Constitution*	Response rate [†]	Multiple comparison*
1(7)	4	소음(60.9) 태음(51.3) 소양(39.1) 태양(18.8)	3,4>1 / 4>2
1(8)	4	소음(64.8) 태음(44.6) 소양(38.3) 태양(37.5)	4>1,2,3
2(4)	2 4	소음(21.4) 소양(11.9) 태음(8.3) 태양(.0)	2,4>1 / 4>3
3(3)	3	태음(27.9) 소양(15.7) 소음(12.6) 태양(12.5)	3>2,4 / 4>1
6(2)	2	소음(10.2) 소양(9.4) 태음(4.7) 태양(.0)	2,4>3
7(9)	4	태양(12.5) 소음(11.1) 소양(6.3) 태음(5.4)	4>2,3
9(4)	4	소음(35.9) 태음(16.9) 소양(7.1) 태양(.0)	4>1,2,3 / 3>2

* 1=Taeyangin, 2=Soyangin, 3=Taumin, 4=Soeumin

[†] %

으로 간주되는 문항('1(5)과묵하면서 점잖다', '1(6)듬직하다', '8(2)꿇불이 두툼하다')은 타 체질과 태음인을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리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다른 한 체질 사이의 차이만 나타낸 '5(4)눈이 크고 순해 보인다' 문항은 참고할 만하다.

체질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에 대한 다중비교 결과, 소음인의 경우 타 체질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이 7문항이었고 이들 중 원래 소음인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항은 5문항이었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1(8)차분해보인다', '9(4)목소리가 작고 차분하다' 문항에서 다른 모든 체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특히 이 두 문항의 내용이 소음인의 용모 특성을 매우 의미있게 잘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체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의미있는 문항으로 '1(7)온순하다', '2(4)▽형', '7(9)토끼이빨이다' 이 있다.

체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서 원래의 의도에 부합하는 문항들의 내용은 체질별 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원전에 기준하여 개발된 설문 문항이라고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원래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산출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원전들을 기초로 구성된 용모에 관한 설

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용모에는 원전에서 제시된 전형적인 용모 특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태양인과 소양인의 경우에는 원전에서 제시된 전형적인 용모 특성들이 실제 태양인과 소양인의 용모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한 것으로 자신이 용모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타인이 관찰하는 것의 차이는 추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사상인의 안면 계측 자료나 사상인 안면 영상 자료의 수집을 통해 실증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렇게 축적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상인의 용모 특성에 관한 새로운 지견을 얻게 되어야만 사상체질 진단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결론

본 논문에서 이 새로운 자기보고식 체질진단설문지(SDQ)를 가지고 시행된 다기관 연구로부터 얻은 43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자기 스스로의 용모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사상인 용모의 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태양인의 용모에서 '1(1)과단성(카리스마적인 면)이 있다', '9(1)목소리가 크고 우렁차다' 은 참고할 만하다.

2. 소양인의 용모에서 '1(3)날쌔면서 용감하다'

은 의미가 있으며, '2(4)▽형', '6(2)코끝이 얇고 예리하다', '9(5)말이 많아 경솔해 보인다' 은 참고할 만하다.

3. 태음인의 용모에서 '3(3)얼굴이 넓적하다', '1(5)과묵하면서 점잖다', '1(6)뜸직하다' 는 의미가 있으며, '8(2)코끝이 두툼하다' 는 의미가 있고, '5(4)눈이 크고 순해 보인다' 은 참고할 만하다.

4. 소음인의 용모에서 '1(8)차분해보인다', '9(4)목소리가 작고 차분하다' 는 매우 의미가 있고, '1(7)온순하다', '2(4)▽형', '7(9)토끼이빨이다' 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허만희, 송정모, 김달래, 고병희.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2;4(1): 107-48.
2. 홍석철 외 7인.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1):101-42.
3. 이의주, 이재구, 김정연, 송정모. 한국인 신체 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1):143-60.
4. 홍석철, 이수경, 송일병.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8;10(1):161-70.
5.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별분류검

- 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8(1):187-246.
6.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별분류검사지(QSCC II)에 대한 타당화-각 체질집단의 집단별 Profile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996;8(1):247-94.
7. 김상복, 이수경,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94-103.
8. 장현록,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45-50.
9. 나대운.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박은경, 박성식. QSCC II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34-57.
11. 김태연, 유정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 (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37-38.
12. 이상규, 곽창규,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 (II). 사상체질의학회지. 2003;15(1):39-49.